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1월 미 물가 상승 가능한 이유?
- WSJ: 이제는 구직자가 채용 수수료를 낸다
- WSJ: 텍사스 남부 지역 이민 단속으로 경제 타격 시작

[미국 금융]

- WSJ: 주식 급반등에도 투자자들 불안하다
- YahooFinance" 미 국채가 하락... 중국 정부, 은행들에 “국채 보유 줄여라”
- Bloomberg: Warsh 연준 의장 지명자, 연준-재무부 협정 개편 제안...채권 시장 긴장
- Bloomberg: 비트코인 변동성 커...다시 7만불 아래로

[물류]

- WSJ: 뉴욕·뉴저지 항만의 Maher 터미널 매각한다

[오일]

- Bloomberg: 오일 상승세... 미, 선박에 이란 해역 경고에

[미국 경제]

WSJ: Why Inflation May Be About to Come in H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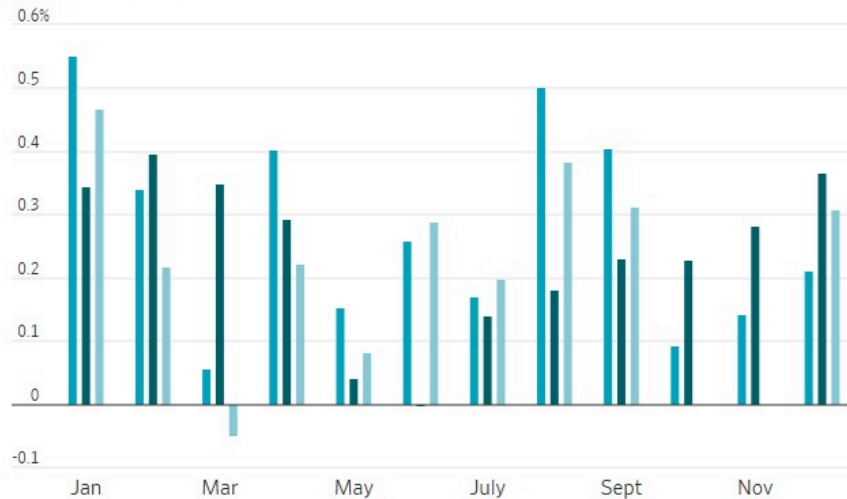
1월 미 물가 상승 가능한 이유?

- 월가 관계자들은 올해 1월 물가가 올랐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왜냐하면 소비자 가격은 역사적으로 1월에 더 빨리 상승해 왔기 때문이다.
- 보스턴 연준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1985년 이래 계절별 조정치로 1월은 다른 달에 비해 평균적으로 물가가 0.03% 상승했다는 것이다.
- 소프트웨어 업체인 Adobe에 따르면 1월 온라인으로 구매한 품목의 물가가 크게 상승했다. 이는 미 관세가 소비자에게 전가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Hot January Inflation

CPI, one-month increase

■ 2023 ■ 2024 ■ 2025



Note: A government shutdown disrupted data in Oct. and Nov. 2025

Source: Labor Department

기사

WSJ: Job Hunters Are So Desperate That They're Paying to Get Recruited

이제는 구직자가 채용 수수료를 낸다

- 이제는 고용주가 아닌, 구직자가 일을 찾기 위해 고용 서비스 회사에 돈을 내는 방식으로 구직 패턴이 바뀌고 있다. 전통적으로 예전에는 고용주가 고용 서비스 기관에 수수료를 주었던 전통 방식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화이트칼라 직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패턴이다.
- 현재는 취업이 힘들어 평균 일을 찾는 기간은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관련 연방 데이터는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팬데믹 이후 가장 처음으로 구직자가 채용 공고건수 보다 많다.
- 이 같은 최근 구직 비용 지급 방식이 다양한데 구직자는 첫째 봉급의 일부 비율을 지급하거나, 매달 서비스 비용을 제공하거나, 또는 일자리 지원 건수당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도 있다.

기사

WSJ: Immigration Raids in South Texas Are Starting to Hit the Economy

텍사스 남부 지역 이민 단속으로 경제 타격 시작

- 남부 텍사스에서 강력한 이민 단속이 시행됨에 따라 때문에 건축이 크게 지연되고 경제에도 타격이 생겼으며, 주택 공사가 수개월간 지연되고 있다.
-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구금되는 사례가 있어 근로자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Hidalgo 카운티의 주택 건축 활동이 30%나 줄었다.
- 이 단속으로 기업에도 큰 여파를 주었는데 예를 들어 콘크리트 공급업체는 파산 보호 신청을 했고, 또다른 타일 공급업체는 530만 달러 매출 손실을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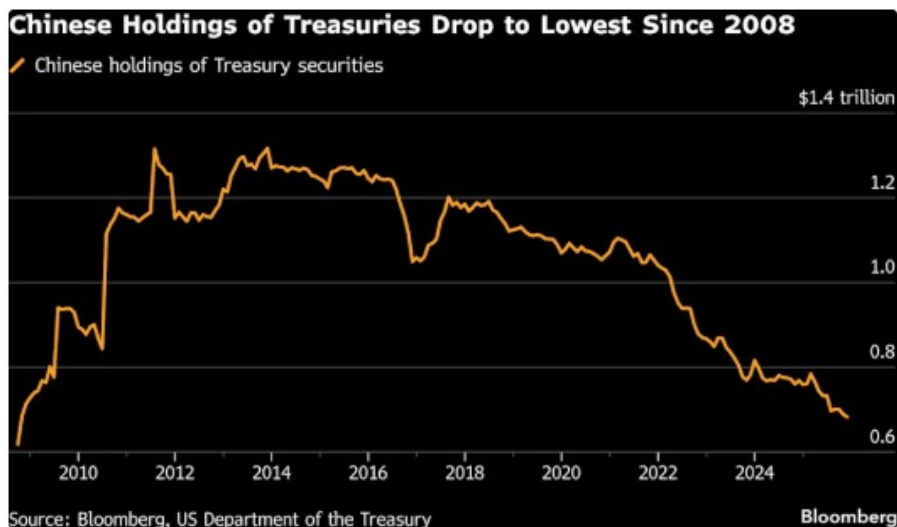
[미국 금융]

WSJ: Stocks' Sharp Rebound Is Only Making Investors More Nervous 주식 급반등에도 투자자들 불안하다

- 가파른 하락세가 지난주 반등으로 이어졌고, 오늘 월요일에도 S&P 500과 나스닥인 0.5% 정도 상승세를 오전에 보이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불안한 입장이다.
- 지난주 금요일에는 다우지수가 1,200포인트 이상 급등해 50,000을 넘어서었지만, 소프트웨어 주식은 이전 하락세를 보였다.
- 인공지능으로 인한 광범위한 혼란과 기업들이 AI 투자에서 예상 수익을 내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 그런데 오늘 월요일에는 반도체 업체 지수는 1.3% 상승했고,
- 소프트웨어 기업에 투자하는 주목받는 상장지수펀드는 연속 상승을 이어가며 5% 이상 올랐다. 변동성이 심한 시장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YahooFinance: Treasuries Fall as China Banks Asked to Limit Bond Holdings 미 국채가 하락... 중국 정부, 은행들에 “국채 보유 줄여라”

- 최근 중국 정부는 산하 국영 금융기관들에게 “시장의 변동성 우려 때문에 미국 국채 보유를 줄여라”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미 국채 가격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0.04% 포인트가 올라 4.25% 를 기록했지만,
- 이후 상승폭은 0.02%포인트로 줄었다. 또한 미 국채 30년물 수익률은 4.88%로 상승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 달러 현물 지수는 0.3% 하락했다.
- 중국 당국자들은 미 국채 축소 규모나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는데,이번 지시는 중국 정부가 직접 보유한 국채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Bloomberg: Warsh Call for Fed-Treasury Accord Stirs Debate in \$30 Trillion Bond Market

Warsh 연준 의장 지명자, 연준-재무부 협정 개편 제안...채권 시장 긴장

- 연준 의장 지명자인 Kevin Warsh는 1951년 체결된 연준과 재무부간의 기존 협정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 이러한 개편이 단순한 사무적 조정 수준일 경우 단기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준의 현재 채권 포트폴리오까지 바꾸는 대규모 개편이라면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시장을 우려하고 있다.
- 투자자들은 이 협정이 새로 체결되면 재무부 입장에서 볼때 연준이 일부 국채를 사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 달러 가치와 미국 국채의 안전자산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Bloomberg: Bitcoin Falls Below \$70,000 After Wild Roller-Coaster Ride

비트코인 변동성 커...다시 7만불 아래로

- 지난주 말 큰 등락을 겪은 비트코인은 오늘 월요일에 7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 트레이더들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이 강세를 이어 가려면 상승 모멘텀이 필요한데, 지난주 반등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한편, 미국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에는 지난주 금요일 2억 2,100만 달러가 유입됐다. 이는 투자자들이 시장 급락 후 저가 매수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월요일 오전 현재 \$68,868달러로 거래 중이다.

[물류]

WSJ: Maritime Giants Target Major New York-Area Port Terminal

뉴욕·뉴저지 항만의 Maher 터미널 매각한다

- 4백50 에이커 규모의 뉴욕·뉴저지 항만내 Maher Terminals은 30억 달러 이상에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 뉴욕·뉴저지 항만은 미국 동부 해안에서 가장 분주한 항만으로, 지난해 8백90만 개의 컨테이너의 물동량을 처리했다.
- 이와 관련 터미널 매각이 이루어져도 자산운용사인 Macquarie Asset Management가 이 터미널의 임대권을 2063년 9월까지 33년 연장받게 된다. 해운사, 항만 운영사, 인프라 투자자들이 이번 매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

Bloomberg: Oil Edges Lower After US-Iran Talks Ease Middle Eastern Tension

오일 상승세... 미, 선박에 이란 해역 경고에

- 미국이 선박에 호르무즈 해협 접근을 피하라고 권고한 뒤, 유가가 소폭 상승했다. 최근 핵 협상 속에서 완화됐던 위험 프리미엄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 오일 가격이 오늘 이른 오전만해도 하락세를 보였었다. 미국과 이란이 중재를 통한 간접 회담을 계속하기로 하면서 공급 우려가 완화됐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이제 오일가가 소폭 올라 서부 텍사스산은 약 64달러 근처에서 거래됐다. 오일가는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으로 상황에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다.

기사

KOCHAM | 445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